

##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23학년도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3.2.15.(수) 14:00-16:30
		장소	서울캠퍼스 문헌관 1504호
공시완료 확인	1.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시스템 □ 2.장학재단 등록금통계조사시스템 □ 3. 홈페이지 □		
안 건	본예산안 관련 질의응답		
	<p>사무처장이 개회를 선언함.</p> <p>- <b>(서울)비대위원장</b> : 예년에는 기타시설관리비 대동제청소경비가 4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2023학년도 대동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따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함.</p> <p>- <b>간사</b> : 코로나 상황의 종료로 대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요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예산들이 있으나, 사용하게 될 경우 2023학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p> <p>- <b>(세종)비대위원장</b> : 건축물관리비 중 교육시설 안전인증용역은 어떠한 항목인지 질의함.</p> <p>- <b>사무처장</b> : 모든 교육시설안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건물이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p> <p>- <b>(서울)경제학부학생회장</b> : 집기비품 매입비에서 2022학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교육환경개선 집기구입이 4억1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교육용집기비품도 4억2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크게 감소한 이유가 있는지?</p> <p>- <b>간사</b> : 2022학년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이전인 2019학년도 이전 자료까지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예산이 다소 빠듯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함. 실제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실적치에 맞게 줄인 것이라고 함.</p> <p>※ 2022학년도에 건축도시대학 행정실에서 '와우관 및 제3공학관 리노베이션 관련 수업용 책상 등' 에 예산을 4억7천5백만원 가량을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 교육용집기비품 매입 실적은 1억원입니다.</p>		

- **(세종)비대위원장** : 건축물관리비 예산 항목들이 추경예산을 받았을 때 본예산과 바뀌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항목 기준을 어떤 근거로 편성하는 것인지 질의함.

- **간사** :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관리팀과 총무관리팀에서 계획중이거나 진행중인 공사들의 예상 금액을 제출하여 산출한다고 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지 못하는 공사도 있고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차이가 날 수 있다.

- **(세종)비대부위원장** : 세종캠퍼스 방수공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방수공사와 별도의 공사인지 질의함.

- **간사** :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공사와 본예산 공사는 중복될 수 없다고 함. 다른 추가 방수공사라고 답변함.

- **(서울)경제학부학생회장** : 임의건축기금의 적립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함.

- **사무처장** : 임의건축기금은 건물감가상각비와 건축적립기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예금이자 수입이 크게 늘어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건축기금은 정해진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건축공사나 기존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 **(서울)비대위원장** : 2018학년도 이후 꾸준히 교원확보율을 올리는 것에 힘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2022학년도 예산안보다도 2023학년도 예산에서도 교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설명을 요청함.

- **교무처장** : 교수충원에 대해서 교무처와 학교당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신중한 채용을 위해서 면접 프로세스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함. 30여년 전에 홍익대학교에서 한해에 우수한 교원을 30명 이상씩 채용하였다. 그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30명 이상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 이상의 적격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교원확보율이 높은 학교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함. 비교 대상인 학교들은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적은 연구교수의 비율이 높는데, 홍익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모두 연간 18시수의 책임시수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함.

- **(세종)비대부위원장** : 조형대의 경우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높다고 함.
- **교무처장** : 미대, 조형대의 경우 채용 시 실무경험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 실무를 계속하면서 겸임으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 **(서울)경제학부학생회장** : 2023학년도 본예산 인건비 항목에서 겸초빙 교수의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겸초빙 교수가 증가될 경우 학생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함.
- **교무처장** :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임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겸초빙교수의 인원을 늘리는 것을 허가했다고 함. 앞으로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교수충원을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세종)비대위원장** : 수강신청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교원이 미배정된 과목이 많다고 함. 수강신청 전까지 배정되는지 질의함.
- **교무처장** : 2월 17일까지는 모두 채워져서, 수강신청 전까지는 모두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세종)비대위원장** : 학생지원비 중 신입생활영문문화제 경비는 어떤 것인지 질의함.
- **학생처장** : 세종캠퍼스의 신입생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설명함. 거리미술전이나 운동부 경기와 관련된 응원단 경비 등도 작년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함.
- **(세종)비대부위원장** : 대학로캠퍼스도 학교의 건물인데 비싼 대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질의함.
- **학생처장** : 학교의 모든 건물이 교육시설은 아니라고 함. 교육부에서 허가하는 범위에서 임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한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 대학로캠퍼스의 전시관을 학생들을 위해 개방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며, 어느 범위까지 대관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구성원이 임대할 경우 대관료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함. 졸업전시회에 한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줄 수 있을지는 학생처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함.

- **(세종)비대위원장** : 지급수수료 중 각종소송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함.

- **사무처장** : 학교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소송이 있다. 과징금이나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 **(세종)비대위원장** : 실험실습비에 대한 열람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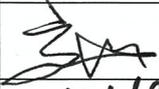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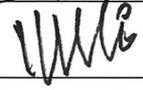
- **사무처장** : 기획처에서 업무연락이나 학과장에게 메일을 보내서 알리겠다고 함.

- **(세종)비대위원장** : 대동제경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질의함.

- **사무처장** : 예년보다 30%가량 증액된 금액을 인상했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연예인들을 부르고 무대를 설치하는 것에 큰 돈을 쓰는 것 보다도 현명한 방법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함.

- **(서울)경제학부학생회장** : 대동제 기간의 안전문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사무처장** : 다음 등심위는 2월 20일에 개최하며 본예산 심사 및 의결 예정임을 안내하고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음 선 필		위 원	김 흥 태	김 흥 태
	위 원	차 재 연		위 원	박 정 수	박 정 수
	위 원	백 은		위 원	차 봉 준	차 봉 준
	위 원	임 찬 숙		위 원	김 재 희	김 재 희
	위 원	황 병 희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7명	불참
작성자	재무팀 간사 박병혁		작성년월일		2023.02.15	